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선한 뜻을 품은 아비아 성경: 열왕기상 14장 1-11절

Tag:

1 그 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2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3 그대의 손에 떡 열 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4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5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 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6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네게 전하리니

7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8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9 네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10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 자나 놓인 자나 다 끊어 버리되 거름 더미를 쓸어 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갈게 쓸어 버릴지라

11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왕상14:1-11)

아비야는 여로보암의 아들 (아마 당시에 젊은 청년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뒤를 이어 북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

-그가 젊었을 때는 솔로몬의 공사 감독관이었다.

-그는 아히야 선지자로부터 북쪽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듣게 된다.

-이 일이 솔로몬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학정을 피해 애굽으로 도피해 살았다.

-솔로몬이 죽은 뒤 그는 돌아와서 10지파의 왕이 된다.

-그러나 그는 애굽에서 배워 온 금송아지 우상을 이용해서 민심을 붙잡고자 하였다.

-심지어 그는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웠다.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은 선지자들로부터 철저한 망국병임을 지적당하였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금송아지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다. (13장.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 이미 하나님의 저주는 시작되었다.

그 결과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다.

-그는 아비의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여로보암의 꿈수.

아내를 평범한 여인으로 가장해서 아히야가 아비아에 대해 무어라 말하는지 들으러 보냄.

-여로보암은 위기의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절실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된 다음에는 하나님이 필요없어졌다.

-오히려 방해하거나 걸리적거리는 존재였다.

-그는 다윗왕과 같지 않았다. 다윗왕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애뜻했지만, 여로보암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정권을 쥐자 마음이 변했다. (다윗은 정권을 쥐어도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

-조금 낫다 싶으면 바로 갑질하거나, 불법을 자행하거나, 교만해지거나, 무례해지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은 기회는 주시는 분이지만, 이처럼 배은망덕한 자들에게는 냉정하시다.

-하나님이 정말로 인정하는 자는, 진실한 자, 충성스러운 자, 마음이 변치 않는 자이다.

6절;흉한 일을 전하는 아히야 선지자 (비운의 선지자, 그는 여로보암 때문에 불행스러운 삶을 살아갔다. 여로보암이 정권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은둔생활을 하였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로보암에게 흉한 일을 예언하는 선지자가 되었다. 그러나 선지자는 흉한 일을 전하기도 한다.)

9 네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10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 자나 놓인 자나 다 끊어 버리되 거름 더미를 쓸어 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갈게 쓸어 버릴지라

저주를 무서워할줄 아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 복이 존재하고 갈망한다면 저주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그 저주가 내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말자.

-하나님은 그런자가 잘 나가는 순간 교만하고, 갑질하고, 무례한 것을 통해서 그를 심판하신다.

-그나마 저주 가운데서도 가장 가벼운 저주를 당하는 자가 아비아이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품었다.

13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왕상14:13)

-저주 가운데는 묘실에 안장되지 못하는 것도 있다.

-안타깝게도 아비아는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만 품었다.

-그는 그 선한 뜻을 펼치는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선한 뜻을 펼치는데 적극적이지 않는 것은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

-그러나 저주를 극복하고, 위기를 모면하고, 다가올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이 무엇일까?

-그것이 곧 적극적 선행이며, 희생적인 헌신이며, 철저한 경건생활이다.

-우리에게는 운명이란 없으며, 다만 숙명이 있을 뿐이다.

-자신의 운명을 깨닫는 순간, 자신의 저주를 깨닫는 순간, 자신의 숙제를 깨닫는 자가 복된 자이다.

-자신의 숙제를 깨닫는 자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아멘.

<찬양예배>

제목 : 하나님의 음성듣기 성경: 요한계시록 3장 20절

Tag:

20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3:20)

1. 이니시어티브가 하나님께 있다. initiative

-내가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하라.

-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게 하라.

2. 두드리노니; sign이 있다. 두드림. 특정한 심리적 상태, 지연되는
상황,

3.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음성을 알아차리는 단계

4. 문을 여는 단계 -적극적인 행동

5. 함께 거하는 단계